

변화하는 학교!! 변화하는 사람??

Changing School!! Changing People??



오 병 옥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Oh, Byeong-Uk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yeonguky@kedi.re.kr

1. 교과교실제 추진 배경

1.1 교과교실제 도입 배경

학급을 기본으로 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수업 때마다 선생님들이 교실로 이동하는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은 근대적 학교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놓고,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작성된 시간표에 따라 공부시키는 ‘학급교실제’는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매우 효율적이었으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생의 흥미와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창의적인 수업을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교과교실제’이다.

현 정부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교실이 변하고 수업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던 교과교실제를 2009년 3,000여억 원의 국고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전국 647개교의 중·고교에 본격 도입²⁾하였고, 2011년 2월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을 발표³⁾하면서 2014년까지 6학급

	도입이전	도입이후
학교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입식 일방향 수업 위주 교과 전문성 신장 기회 부족 교육보다 관리 위주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적 쌍방향 수업 가능 교과의 전문성 심화 연구 및 교육 중심 학교
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에 맞는 교과 선택 미흡 수업 참여율 저조 타율적 시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선택 가능 적극적이고 능동적 수업 참여 자율적 시간표 관리
교육 행정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관리 기능 위주 경직된 조직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지원 위주 기능으로 전환 탄력성 및 유연한 조직 편성

그림 1.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변화하는 학교교육 전망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2 교과교실제 추진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선 1단계로 2012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고, 2단계로 2014년까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중·고교의 약 80%⁴⁾인 4,300개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계획⁵⁾이다.

교과교실제 도입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2011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

1) ‘교과교실제’란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방식이다. 다양한 학습기자재가 구비되어 있는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여 수업을 듣고, 교사들은 교사 연구실에서 수업을 위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2) 2009.05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
3) 2011.02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

4)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2011.02)」에서는 90%를 목표하였으나, 「2012년도 교과교실제 추진계획(2012.02)」에서 80%로 하향 조정함.
5)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2011.02)」이 발표될 당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중등학교(5,383교)의 18%인 968교이며,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의 증감추세, 지역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예정임.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제언

됨에 따라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시급한 일반고부터 지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 개편에 따라 현행 직업계열 특성화고 중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우선적으로 도입·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교과교실제를 최초로 도입할 때에는 ‘선진형(A type)’, ‘과목중점형(B type)’, ‘수준별 수업형(C type)’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전면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재구조화하였다. 교과교실제 도입 초기의 3개 유형 중 ‘과목중점형(B type)’은 적용 교과가 1개뿐이라는 문제점이, ‘수준별 수업형(C type)’은 교과교실 환경 구축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두 유형을 ‘과목중점형’으로 재구조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개선된 ‘과목중점형’은 3년간의 운영 성과를 고려하여 점차 ‘선진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 교과교실제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2.1 학교운영의 변화

교과교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운영 형태의 다양한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학교의 교무조직 및 운영 형태이다.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교사가 교과별 교사연구실에 상주하게 되면서 ‘행정’ 업무 보다는 ‘교과’중심의 교수-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과 교과중심의 부서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한 교실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단위학교에서는 교과 전문성을 살린 교과수업 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이동에 따른 새로운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활공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지게 되므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서는 교과지도, 학교생활, 전달사항,

학교시설 관련 등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학생생활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2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 필요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과목별로 학생 수준에 따라 학습 집단을 재편성하고,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집단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블록타임을 적용한 탄력적 수업 운영을 꼽을 수 있다. 70분, 75분, 90분, 100분 등과 같이 연속된 수업시간 확보를 통해 교실수업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 위주에서 학생 활동중심의 토론학습이나 발표학습, 다양한 실험, 모듈별 협력학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2.3 환경조성의 변화

교과교실제 도입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는 학교 환경의 변화이다. 일률적인 형태 및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는 교실형태에서 교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교과교실로 전환하고, 학습 집단 규모에 따라 교실의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조닝(Zoning)⁷⁾ 기법이 도입되면서 교과목별 교과교실을 같은 층에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교실+교사연구실+미디어스페이스+홈베이스’를 인접하게 배치하여 학생과 교사의 이동 및 교과교실의 관리, 학생과 교사간의 유대감 형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홈베이스 사례



- 6) 학교 여건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고려하여 학습 집단 규모 별로 대규모(1.5칸), 중규모(1칸), 소규모(0.5칸) 교실을 확보함.
- 7) 조닝(Zoning)이란 유사한 기능과 용도의 실을 동일한 영역에 구성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교과군내 과목별 교과교실을 인접 배치하되, 학생 및 교사의 이동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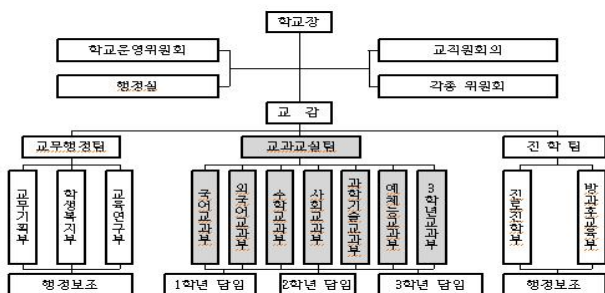


그림 2. 교무조직도(부산 K고)

또한 학급교실의 개념이 축소되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과교실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머무를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미디어스페이스와 같은 새로운 학생 생활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학교운영방식이 학급·행정중심에서 학생·교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무실은 교감, 부장교사, 행정요원 등의 최소 인력이 머물도록 공간을 축소하고, 교과목별 교수·학습방법 연구, 교재 및 수업모형 개발, 교사 협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사연구실을 마련하였다.

3. 교과교실제 관련자의 인식 변화 과제

3.1 학교 관계자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어떻게 수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이때 기본 방향을 세워야 하는 집주인이 바로 학교 관계자이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주문을 설계자 및 시공업체에 해야 하는 것이다. 허나 필자가 교과교실제 업무를 맡은 이후 200여개가 넘는 학교를 방문하여 모니터링하면서 당황했었던 것은 주문을 해야 하는 집주인이 주문해야 하는 방향 자체를 세우지 못하거나, 기본 방향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마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학교를 교과교실제로 전환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한가 또는 리모델링만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 및 확대학급 실시여부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향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인근 지역학교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였는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었다. 심지어 기본 방향 수립 자체를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교육과정이나 수업은 완성된 교실환경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학교 관계자도 있었는데, 같은 영어 교과를 가르치더라도 교사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다르고 활용하는 교구·기자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겠다는 학교 관계자의 얘기는 잊히지 않는다.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해야만 내 입맛에 맞는 요리를 먹을 수 있다. 주방장에게 그냥 ‘알아서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오는 요리가 내 입맛에 맞을 확률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학급교실제에서 교과교실제로 학교를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 관계자들의 마인드이다. 교과교실제 추진 학교 관계자의 마인드가 능동적인가 또는 수동적인가에 따라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이 수월하느냐, 험난하느냐 또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

3.2 교육청 담당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교과교실제 사업의 주무는 장학 쪽에서 맡고 시설 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교실제 사업은 교육과 시설이 어우러져 있는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명의 담당자가 있는 형태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두 명의 담당자가 상대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교과교실제 추진이 가능하다.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이 체계적이고 빠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두 명의 담당자가 오랜 기간 동안 교과교실제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의기투합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의 경우 교과교실제 사업 시작과 동시에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 학교 설계 및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경우 교과교실제 업무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사명감 보다는 등 떠밀려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업무 담당자는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기회가 되면 교과교실제가 아닌 좀 더 수월한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고 새로운 담당자로 바뀌게 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6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교실제 사업의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운영시작단계까지 1년의 사이클로 진행되는데 6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만하다가 지쳐서 또다시 보직 변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분명 교과교실제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허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이고, 해당 시·도교육청 및 소속 학교를 위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람찬 일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오히려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충북의 모 장학사는 해당 업무를 2009년도부터 3년간 주무로 맡아 추진하면서 업무는 고되지만 내 지역의 아이들에게 좀 더 좋

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내 지역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 만큼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하길 기대한다.

3.3 학교시설 전문가

교과교실제 정책이 단위 학교에 빠르게 정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 바로 학교시설 전문가들이다. 학교시설 전문가들은 생업(生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 학교 선정단계에서부터 학교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단위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가 교과교실제로 운영되는 모습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 학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향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학교 관계자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여 벌어지는 경우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경우 학교시설 전문가가 제시한 계획안이 시설측면에서만 본다면 최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시설환경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교사,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 학생 등을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학교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 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의 과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선 시설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배를 만드는 것은 조선소 관계자지만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니만큼 그들의 요구사항을 배를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배의 조정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한 선장 및 선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배를 움직이는 선장 및 선원이 조정할 수 없다면 쓸모 없는 고철일 뿐이다.

3.4 정책 관련자

2009년 5월 교과교실제 정책이 발표되고, 최초 647개교가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된 이후 4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목표 수치에 따라 2012년 8월 현재 약 2,300여개의

중등학교가 교과교실제 학교로 전환되었다.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 말하기엔 실로 엄청난 성과이며,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단위학교 및 지원센터 관계자의 노력과 희생이 녹아 있는 숫자이다.

교과교실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정해놓은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린 듯하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 학교를 교과교실제 학교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고려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난 지금, 목표 달성과 더불어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목표 수치의 절반 정도를 달성한 이 시점에서 교과교실제 정책 관련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드백 하여 지금껏 진행되어온 교과교실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목표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과교실제 정책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목표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발표된 기본 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 2009.05
2.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기본계획, 2011.02
4.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 2012
5.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사례집, 2012
6. 배동인, 창의적 교실수업 실천을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2011.04